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시편 3:1-8)

시편 3편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5절)라
는 말씀 때문에 ‘아침의 시’라고 부릅니다.

다윗 왕에게는 매우 위기에 처한 아침이 있었습
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저녁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시 4:8)라고 고백했습니다.

1.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시편 3편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있습니다. 다윗은 아
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했
습니다(삼하 15, 16장).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헤브론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윗 왕
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기치 않았던
사건에 다윗 왕은 측근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울면서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갔습니다(삼하 15:30).

그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
초하였느니라”(삼하 16:7-8).

이것이 시편 3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는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시인 자신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했습
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대적, 원
수, 승리, 방패,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와 같
은 전쟁터에서 외치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학자 Leupold는 시편
을 주석하는 가운데 3편에 압살롬은 아마도 반역의 깃발을 내걸었을 것
이고 다윗은 이른날 아침에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합니다.

2. 악한 세상

다윗이 사면초가가 되어 궁에서 쫓겨나듯 우리도 악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하고 사탄과 싸워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과 싸워
야 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과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소문, 거짓말, 모욕, 험담,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반발 등 견디기 힘든 때에도 우리는 시인과 같이 “구원은 여호와
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의 존신앙

원수들로 인해 위기에 빠진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
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셀라’(2절)를 기점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셀라’는 음의 기호로서 한 음을 올려 큰 소리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시
인은 2절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소리를 높여 3절부터는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힘 있게 외칩니다. 성도가 원수를 너무 오래 보고 있
으면 원수는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성도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바
라보던 다윗이 하나님께로 눈을 돌린 후 그는 대적하고 있는 아들의 군
대를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살리시고 권능으로 보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구
원하지 못합니다.

그의 초기에 하나님은 그를 막아주시는 방패였
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머리를
숙이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므
로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즉시, 혹은 우
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4.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하는 와중에서도 다윗이 편안
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
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5-6절). 시인은 하나님
을 의지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 날에 일어
날 일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만인이
에워싸 진 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
다(6절).

종교개혁자 루터는 황제와 교회지도자들의 부
름을 받고 Worms 국회의사당으로 갔습니다. 안전을 약속 받았지만 그
의 친구들은 이단의 안전은 존중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루터가 Worms에 도착할 무렵 그는 친구로부터 오지
말라는 전갈을 받았지만 그는 ‘Worms 지붕 위에 기왓장처럼 악마가
많이 있다 해도 나는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고 했습니다. 수년 후 루터
는 이 순간을 회상하며 “나는 용감했고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성경 말씀과 건전한 이성으로 설득당하지 않는 한 나는 나의 진술
을 철회할 수도, 철회할 의사도 없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이라고 말했습
니다. 루터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던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
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5. 구원을 위한 외침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구름이 진중에 있
는 법궤 위에 덮였습니다. 궤가 떠날 때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
의 대적들을 흠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라고 말하고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
소서’(민 10:33-36)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군
대 2만 명을 에브라임에서 멸하게 했습니다. 이때에 시인은 ‘구원은 여
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8절)라고 말합니
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살리
시고 권능으로 보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저자
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요 2:9).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세상적 위협과 위협 앞에서 강하고 담대
하여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5 농촌 전도대 출발

8월 9일(화) 강원도 영월군 주천제일교회로

지난 주 단기선교팀과 함께 파송식을 가진 2005 농촌전도대(대장 윤찬오 장로)가 9일(화) 오전 9시 강원도 영월군 주천제일교회로 출발한다.

농촌전도대는 9일(화)부터 12일(금)까지 4일

동안 주천제일교회와 그 일대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축호전도·이미용 봉사·여름성경학교를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된다. 출발을 앞둔 농촌전도대와 사역을 위해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

8월14일(주)-17일(수) 속초 추양수양관에서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14일(주) 저녁부터 17일(수)까지 강원도 속초시 추양수양관에서 열린다. 청년부 수련회는 14일(주) 찬양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비전을 받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 온 교회는 기도로 동참한다.

7월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7월 중 우리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7월중 등록한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진옥 권병수 권재욱 김경순 김금순 김기영 김동진 김명욱 김미경 김민주 김범진 김복자 김복중 김선아 김소영 김아랑 김영서 김예진 김옥주 김이영 김정숙 김준상 김지혜 김진아 김태균 김형희 김혜영 김희선 남궁진우 민근도 민재홍 박기태 박선영 박소정 박정규

박종국 박준우 박지호 방은주 백영석 변재희 손상호 손성웅 손성찬 손영권 송근화 송민수 안병숙 안세화 양일순 양정민 엄은숙 엄지현 오윤정 온길현 은영현 왕정원 우경진 우형준 유국현 유세걸 유현중 윤선민 윤성현 윤혜영 이가희 이구화 이동민 이동인 이상일 이영숙 이영운 이은총 이임순 이준규 이호준 임경란 임은희 임재현 임정식 장유정 장현희 장혜경 장혜경 전수현 정민정 정부덕 정연수 조광규 조광민 주현지 지현배 천아름 최봉규 최원석 최주희 최희연 태영빈 한경국 허재혁 허준혁 황주리 이상 102명

나의 하나님

딸보다 못한 믿음

이종창 집사(14교구)



2005년 7월 25일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3인 딸 민정아를 수련회에 참석시키려고 교회에 저녁 6시에 도착 하였습니다. 고1,2때는 제가 먼저 수련회를 챙겨주었지만 고3인 올해는 수련회 말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고3이 있는 가정은 가족 모두가 고3입니다.

큰 딸은 저녁 강의(이종운 목사님)만 참석하고 밤 10시경 서울로 오는 차편으로 귀가하겠다고 하여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착해야 할 시간에 연락은 없고 걱정하던 차에 문자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제1신: 아빠 미안 그런데요 맨날 수련회에 와서 별로 은혜 받지 못했었는데 오늘 너무 좋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생겨서 여기 있습니다.

답신: 뜨거웁도 좋으나 겨우 새 영어학원 등록해 놓은 상태인데 대학 들어가서도 더 많은 기회가 있단다.

제2신: 죄송해요. 이번에 그냥가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정말 여기 있고 싶어서... 죄송해요.

답신: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의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

제3신: 영어학원은 목요일이어요. 학원 피해보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제가 다 생각했죠.

답신: 너는 수련회마다 변화했다고 했는데 이틀이 지나면 그만이야.

제4신: 네 그래도 괜찮아요. 이번 수련회는 무조건 변화 받고 가고 싶어요. 아빠 이번이 고등학교에서 마지막이어요.

답신: 여자아이가 세면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 안했잖아 다시 오는 차편 확인해봐.

제5신: 죄송해요. 변화 받고 오겠습니다. 새벽기도가 될 때 웃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성령의 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딸아이의 믿음보다 부족한 저의 믿음을... 기도할 때 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놓고 대학의 노예가 된 이 속물을...

민정아. 너의 믿음으로 하여금 이 아빠는 두 눈에 회개와 감동의 눈물이 차창가로 크게 번지었다. 교회에서부터 진위고등학교까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너무 멀리 느껴졌던 하루였다. 너를 보고 싶은 마음에.. 사랑한다. 민정아.

만민에게 전도 - 농촌전도대

주천제일교회에서

할렐루야, 이번 여름 봉사 활동을 이곳 주천제일교회에서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 주천제일교회에 부임한지 어언 9년이 흘렀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기에 자주 교역자가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9년의 목회는 이러한 상처들을 치유하는 목회였습니다. 한편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담보상태에 있는 점이 늘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농촌 교회의 한계라고만 하기에 이는 구차한 변명일 것입니다. 늘 주천지역에 사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 모두에게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부족한 자원 때문에 생각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교회 윤찬오장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도위원회 위원들이 답사를 다녀가시고 이곳 주천에서 여름 봉사를 하기로 결의하여 또 두 차례 실무진들이 답사를 다녀가셨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에 주천 지역의 모든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택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봉사가 아니길 소원해 봅니다. 제가 이곳에서 지금까지 10여 년간의 목회가 치유적 목회였다면 이후의 목회는 지역을 섬기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복지, 문화 선교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봉사 활동은 지쳐있는 저의 목회 사역에도 새로운 힘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나온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까지 계속 차오르는 비전을 저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겔47:1-12) 주천제일교회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물결이 주천지역의 모든 영혼에게로 흘러갈 것이며 차고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천제일교회 정연성목사 드림



서울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14대 행사 - 서울 암송필사성경

서울성경암송 · 필사의 대장정을 마치며



은교회가 뜨거운 참여열기를 보였던 성경필사 작업이 지난 4일 끝을 맺었다. 흥해작전 첫날 이중운 목사를 필두로 전 당회원과 권사 등이 일제히 필사를 개시한 지 두달만이다.

완성본에는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의 '고사리 손 필사'에서부터 은빛찬양대원으로 수고하는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기력을 다해 한줄씩 보낸 필사까지 서울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 세대들의 정성이 모두 담겼다.

또 미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현지에서 필사에 동참했다.

특히 성도들이 많이 사는 미국 LA지역의 경우, 자발적으로 서울교회 성도들끼리 다락방 모임을 갖고 고국에서 부쳐준 필사용지를 나눠 쓰는 등 해외에서도 필사 참여의 감동이 이어졌다.

66권 필사의 가장 마지막 순간은 병상에서 이루어졌다. 교회에 나와 필사에 참여하고 싶으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 성도들을 위해 교회는 당초 계획엔 없었지만 이들을 방문해 직접 필사를 받아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교구 교역자들이 환자들의 집이나 병원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들이 혼신의

힘으로 써내려간 한 자 한 자를 받아냈다.

진행부로 삼겼던 어느 집사님은 "필사도 중 쓰러지는 일도 있습니다. 평소 건강이 비교적 괜찮은 권사님이었는데 어찌나 열과 성을 다해 긴장한 모습으로 쓰시던지, 급기야

는 현기증으로 쓰러지셔서 집에까지 모셔다드리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서울교회 성도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필사에 임한 것이 장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확신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2권의 필사본은 각각 보존용과 전시용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 일을 섬기고 있는 김세재 장로는 "축쇄본 성경을 만들어 필사에 참여한 각 가정에 1권씩 보급하고 300여권 정도는 세계 유명대학에 기증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필사본 2권은 올 가을 14주년 기념 주일 헌당식때 봉헌할 계획이다.

전 성도가 뜨거운 열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참여한 성경



필사, 그 은혜와 감격의 열매를 볼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 김민철 (순례자)



언약케

구약성경에 나오는 장막, 또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었던 거룩한 상자. 십계의 석판·아론의 싹난 지팡이·만나가 들어 있었으므로 법궤, 증거궤(출 25:22)라고도 하였다.

언약케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뒤 모세가 받은 말씀에 따라 광야에서 법궤를 만든 뒤 행진할 때 법궤가 맨 앞에서 행진토록 했다. 다윗왕을 거쳐 솔로몬대에 이르러 새성전이 건축되면서 언약케는 성전내 지성소안에 보관됐다. 이 언약케는 하나님께서 속죄를 근거로 하여 은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만나신다는 것을 상징했다. 길이 130CM 폭과 높이 79CM로 된 언약케는 순금 덮개로 된 시온소(Mercy Seat)에 그물들의 날개가 있어 속죄일에 그 위에 피를 뿌려 죄를 덮는 사실을 가르쳤다.

윤숙희 집사(6교구)



오는 11월 27일 교회헌당을 앞두고 우리 서울교회 14대 행사 중 하나인 전 성도가 참여하는 성경암송필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요1장1절)"

이처럼 거룩하고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1800여 명의 성도들이 각각 다른 필체로 직접 기록하여 한 권의 필사본을 완성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대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필사현장에 오신 분들은 모두 한결같은 감동

을 받으셨겠지만, 한 점, 한 획이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몇 번이고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적어 내려가는 나이 드신 권사님으로부터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번갈아 굴리며 써 내려가는 어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일은 경건한 모습이 천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신구약 모두 1,189장 31,173절을 몇 사람의 손길이 아닌 전 성도들의 땀과 정성을 모아 기록해서 이루어진 성경필사본,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유래가 없었던 대역사를 우리 서울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크신 은총과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자자손손에게 대대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런 유물이 될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 60여일 이상 날마다 교회로 출근하여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수고해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필사위원, 감수위원, 특별히 성경목록을 써주신 정집사님께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특히 힘을 얻은 것은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 서울 교회의 가족과 자녀들이 필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편집이 끝나 한 권의 성경필사본으로 탄생되는 순간을 생각하면 그 동안의 피로는 사라지고 벅찬 감회와 환희 뿐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내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이 회개할 것이고 비겁하게 핵을 앞세워 비료와 쌀과 전기를 구걸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역사적인 대장정에 동참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단기에게 전도 - 단기선교팀 현지에서...

승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며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는 만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 속에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한 형제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7명의 팀원들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많은 바자리에서 최고의 일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을 두고 간다는 것이 조금 맘이 아플니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들과의 헤어짐이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간절할 것은 아마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해하는 동아시아 단기선교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PC company B팀 팀장 이승준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8월1일 월요일 오후에 한국을 출발하여 3시간의 비행과 차량이동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짐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잠이 들고 잠들기가 무섭게 현지에서의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2시간을 달려서 선교지역에 도착하게 되어 처음으로 현지인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 주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교사와 함께 교사 수련회를 2박3일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여기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족속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의 동일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운데 제일 큰 문제로 여겨지는 언어와 식사와 문화 같은 것들은 이곳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들에게 다가 갈 수 있었고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문화에서 자란 이들인지라 이들이 맘을 여는 데는 한국 아이들과는 사뭇 다르게 더디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꽃이 임한다 하였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는 하나가 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총 10시간의 신앙교육과 12시간의 워십댄스, 스킷드라마, 인형극, 게임, 새로운 찬양등 교회 학교에서의 필요한 내용들이었

이들의 간절함이 오히려 우리 팀원들을 자극하였고, 도전받게 하였으며 이곳의 신앙을 보고 배부른 신앙생활에 허덕이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더 안쓰럽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모여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는 수많은 권사님들의 모습과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더 큰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도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소진되어갔지만 아직도 전할 것이 남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케 하시고 예전 같았으면 1시간 만에 쉬어서 나오지도 않았을 목소리도 무려 3일 동안 목청을 높여 찬양해도 전혀 이상이 없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가지고 온 것들을 무서운 속도로 습득해 나갔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집중하고 계속해서 물어보며 험락된 시간을 한 시라고 헛되어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이런 아쉬움이 남기에 우린 다음을 기약하고 또 다시 선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단기에 그치는 선교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의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팀은 이곳을 가슴에 품고 남은 일정들 끝까지 승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1일(목) 세계선교 지도자 회의에 참여한다.
- 개업: 조승하 성도 최희숙 성도(13교구) 개포하나부동산 T. 579-4989
- 이사: 최경애 권사(6교구)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 전화: 804-8206
- 주간식당 중사: 도르가 여전도회(8월 7일) 투디아 여전도회(8월 14일)
- 금주의 식사: 천정화 집사 · 최영호 집사 가정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일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8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14가지 행사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계획 하소서
4. 농촌전도대 위하여
5. 노사간의 갈등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3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서탁기도회	매일 새벽 5시 20분

교회외서는 길

